

무주군, 캠핑 성지로 급부상

청정 자연 배경 삼아 덕유대야영장·향로산자연휴양림 등 30개 캠핑장 운영

무주군 지역 내에 보유했던 캠핑장이 국내 캠핑러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다.

무주군 지역 내에는 덕유대야영장을 비롯해 덕유산자연휴양림, 향로산자연휴양림 등 국공립야영장을 비롯해 30개의 캠핑장이 운영 중이다. 특히 530개 사이트가 있는 덕유대야영장은 예약하기도 쉽지 않다. 그만큼 불철을 맞아 덕유산 야영장의 인기도가 절정을 이룬다.

실제로 덕유대야영장의 일반야영장은 4월까지 예약이 완료된 상태라 취소분을 기다려야 하는 상태다. 지난 2018년 개장한 향로산자연휴양림은 모노레일을 비롯해 수영장, 목재문화체

험장 등 편의시설과 체험시설을 갖추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캠핑러들이 무주의 캠핑장을 찾는 데는 그만큼 이유가 있다. 이들은 때 묻지 않은 무주의 청정 자연을 첫 손에 꼽는다.

덕유산을 비롯해 적상산, 대덕산, 민주지산 등 명산이 만들어낸 훼손되지 않은 숲과 계곡이 캠핑에 안성맞춤이라는 평이다. 또한 구천동어사길과 금강변잡두마실길, 무주군이 조성한 걷고 싶은 길 등 주변 관광지에도 캠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매년 캠핑러들이 더 편안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군은 민간 캠핑

장에 CCTV 및 방송장비, 소화기, 일산화탄소 경보기, 글램핑 방역천막 교체 등을 실시했다. 또 야영장 활성화와 프로그램 진행해 낙화봉민들기 체험, 전통공예 체험, 반디별 스토리 콘서트 등 무주의 이야기를 담은 캠핑장을 만드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무주군청 관광진흥과 오해동 과장은 "캠핑과 피크닉이 결합한 '캠크닉'이 유행할 정도로 캠핑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캠핑러들이 만족할 수 있는 캠핑장 조성에 힘써왔다"며 "올해도 안전 시설과 활성화 프로그램 등 야영장에 대한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은 30일 설천면 태권도원 플레이원 주변 0.5ha 규모에 단풍나무 250그루를 심었다.

나무 심어 산림자원 키운다

무주군, 단풍나무 250그루 식재·묘목나누기 호응

무주군이 30일 설천면 태권도원 플레이원 주변 0.5ha 규모에 단풍나무 250그루를 심었다고 밝혔다.

이날 나무심기는 제78회 식목일을 앞두고 진행된 것으로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부의장을 비롯한 무주경찰서(서장 우병현),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 농협(중앙회 지부장 권오정, 무주농협조합장 광동열), 국유림관리소(소장 김영호),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김현교), 무주군산림조합(조합장 박철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추진위원회(위원장 정진욱),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석진숙) 관계자 등 1백여 명이 함께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단풍나무는 대표적인 관상수이자 조경수로 한국관광 100선이기도 한 태권도원 주변은 물론, 전국 10대 관광패러디도시이자 대한민국 대표 산림군인 우리 무주의 아름다움을 배가시키는 자원이 될 것"이라며 "이 자리가 공익적 기능이 큰 산림을 보다 가치 있는 자원으로 가꾸고 있는 우리 군 노력을 더욱 빛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나무를 심고 가꾸기는 힘들어도 화재로 잃는 것은 순간"이라며 "날씨도 건조해져 산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누구보다 앞장서 산불예방을 실천하고 주변에 알려줄 것"을 당부했다.

나무심기를 마친 참석자들은 불철산불 예방을 위해 논·밭두렁 및 영농폐기물, 생활쓰레기 태우지 않기 등의 주의사항을 공유했으며 집과 직장 주변, 마을에 심을 묘목을 나누며 식목일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군청 앞에서 '갑나무' 등의 수목과 '천량곰' 등의 꽃 화분 나누기 행사를 진행한 가운데 1천1백여 명이 동참했다.

한편, 산림이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으로, △생활밀착형 숲 가꾸기를 비롯한 △산불 예방 등 산림자원 보호와 △고소득 산림작물 육성, △향로산자연휴양림과 목재체험장을 중심으로 한 산림관광 육성 사업 추진에 매진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포도 생산 농가 애로사항 청취·발전 방안 논의

최훈식 장수군수, 간담회 가져

최훈식 군수는 30일 군청 회의실에서 장수군의 신소득 작물인 포도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포도 재배 농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훈식 군수와 양철복 장수포도연구회 회장 및 연구회 회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군의 신소득 작물로 떠오르고 있는 포도 생산 농가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고, 장수 포도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간담회에서 최 군수는 관내 포도 농가의 운영 현황을 듣고, 전국적으로 포도 품질이 저하돼 나타나는 소비시장 감소 현상 및 시설 하우스 난방비

용 문제 등 다양한 현안 사항들에 대해 질의응답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철복 장수포도연구회장은 "포도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군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수군의 포도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군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최훈식 군수는 "포도가 우리 군의 신소득 작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게 앞으로 육성지원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지적재조사사업 측량 착수

진안군은 오는 4월부터 시작되는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에 앞서 오는 4월 6일~7일까지 2일간 해당 지구 마을회관에서 사업지구별 재조사측량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올해 사업지구는 자연마을단위 지적 불부합지 유형으로 진안읍 군상3지구(419필지/419,273㎡), 백운면 동창1지구(408필지/143,843㎡), 부귀면 황금2지구(611필지/600,039㎡) 총 3개 사업지구가 대상이며, 내년 12월까지 2년 간에 걸쳐 1,438필지(1,163,155㎡)에 대하여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 등의 공적장부가 새롭게 작성된다.

군은 지난해 9월부터 현실경계와 지적공부가 불일치하여 지적측량 경계 분쟁 우려가 심한 지역을 선정해 10월에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지구별

로 제1차 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등에게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받아 올해 2월 전라북도(토지정보과)에 재조사사업 지구지정을 신청했다.

이에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책임수행기관(한국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재조사추진단)과 대행자(측량업체)가 재조사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등을 거쳐 2024년 10월경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토지경계가 확정되어 이웃간에 경계분쟁이 해소되고, 토지정형화·맹지해소·건축물 경계 저축해소 등 토지의 활용가치 및 이용가치가 증대되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진안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 개최

진안군은 30일 군청 상황실에서 인구감소대응위원회를 개최했다.

군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맞춤형 인구증대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및 점검을 위한 효율적 추진체계 구축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진안군의 인구정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에 대한역할을 맡게 된다.

이날 회의는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진안군 인구늘리기 시책 현황에 대한보고 및 논의,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 보고, 의견청취와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진안=우태민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군, 수정별 공급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한다

장수군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화분매개 곤충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화분매개 곤충 공급체계를 구축에 힘쓰고 있다.

군은 안정적인 수정별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2018년 수정별 인공증식센터를 설립, 2019년부터 자체증식 수정별 공급을 시작했으며, 올해 연간 3,500봉군의 자체증식 수정별을 농가에 공급한다.

군은 자체증식 수정별 공급사업으로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는 토마토, 블루베리, 딸기 재배 농업인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수정별을 공급해 우리 지역의 다양한 신소득 작물이 안정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현철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장수군에서 직접 생산해 공급하는 장수 수정별 사업이 더욱 확대돼 관내 과수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소득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 흑염소 농가 경쟁력 강화사업 추진

무주군이 흑염소 농가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총 사업비 1천만 원을 투입(도비 50%, 군비 10%, 자담 40%)해 흑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축산업 등록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체중측정용 저울을 비롯해 축사 바닥재, 탈부착 드립적재함, 축사 울타리, 사료 급여기 등 염소사육 농가에 대한 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한다.

군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농정 심의를 거쳐 최종 농가를 확정했다.

염소 경쟁력 강화사업을 통해 FTA 타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흑염소 농가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현대화 사육 기자재 지원으로 위생적인 사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 1차 당첨자 발표

무주군이 고향사랑기부제 응원에 대한 감사표시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최한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제 감사이벤트'를 실시한 결과 1차 당첨자를 발표했다. 이번 이벤트는 무주군 고향사랑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절차 없이 자동 응모됐으며, 기부수변에 따라 당첨자가 선정됐다.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6만원 상당의 무주선물 꾸러미 또는 반딧불살과 10만원 상당의 무주사과보양권을 증정

하게 된다. 1차 발표 당첨자는 1번, 33번, 92번, 332번 스페셜번호 4명과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번 특별번호 7명이다.

총 당첨대상은 1번, 33번, 92번, 322번, 1004번, 1614번의 스페셜번호 기부자와 100번, 200번, 300번, 400번, 500번, 600번, 700번, 800번, 900번, 1000번의 특별번호 기부자로 대상자 모두 선정 시까지 이벤트는 지속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